

## 백두산 사슴

정 계 조

백두산이 우리의 산이라는건 모두 알고 있다. 지금의 높이 해발 2,744m는 화산으로 문드러지고 남은 높이이다. 백두산이 늘어뜨리고 있는 자락을 보고 추정하면 4,000~5,000m급의 높은 산이 었었다고 추측한다. 원시림으로 우거진 그 넓은 자락은 무한한 원목을 제공했으며 많은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열대의 아프리카나 눈덮힌 록키산맥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들의 약육강식의 섭리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백두산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 취재팀이 중공 학술탐사팀과 함께 식물의 분포와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촬영했다. 영약으로 알려진 빨간 열매가 맺힌 백두산 산삼을 이끼진 음지에서 발견해서 촬영했으며 백두산 호랑이가 사냥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한 것은 대단한 집념이 필요했으리라 본다. 넓은 초원을 말 사슴 무리가 이동하다가 호랑이의 표호에 놀란 사슴들이 달아나는데 암컷 한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숲속으로 달아나다가 호랑이의 기습으로 뒷 다리를 침엽수림속에서 놓고 있던 반달곰이 백두산 호랑이가 나타나자 높은 침엽수에 기어 올라가 몸을 피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침엽

수 중턱에 매달려 있는 반달곰과 그 밑에서 곰을 쳐다보며 맴돌고 있는 백두산 호랑이의 위용은 원시림 숲속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긴장감을 보여주었다.

평화로운 모습에는 역시 사슴이 등장해야 제격이다. 숲속의 호수가에 나타난 만주록 꽃사슴의 무리중 숫컷들은 30cm 정도 자란 왕관 모양의 뿔을 자랑하며 물을 먹다가 어떤 예감에서 인지 모두들 숲속으로 무리를 지어 숨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백두산 기슭에 야생하고 있는 동물들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동물이 말사슴이라고 한다. 침엽수림과 넓은 초원에 큰 무리를 지어 살고있는 말사슴을 근접 촬영된 것을 보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엘크사슴임에 틀림없다. 말처럼 크게 생겼다. 해서 현지인들은 말사슴이라 부른다한다. 이 말사슴이 인디언들 처럼 알라스카를 육교로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록키산맥에 야생하게 되었으며 인디언들은 이 사슴을 와피티라 불렀다.

백두산 기슭의 현지인들과 만주지방에서 말처럼 생겼다 해서 말사슴이라 부르고, 인디언들은 와피티라 불렀으며 우리는 엘크사슴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엘크사슴을 캐나다와 미국의 록키산맥에서 74년도와 75년도에 수입해 데려옴으로 해서 외국산 사슴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엘크사슴은 틀림없는 백두산사슴이다. 그 거대한 백두산의 자락에 펼쳐져 있는 침엽수림과 초원에서 그 어느 야생동물보다도 많은 개체수를 보이며 야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슴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백두산 사슴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환경을 살펴보자.

한반도의 자존을 지켜온 제 1의 거봉 백두산에선 고도에 따라 사계절을 만난다. 산 자락이 깔린 500~1200 m 사이는 혼교림 지대다. 지대가 평탄하고 기후가 온난하다. 이 혼교림 지대는 백두산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다. 북방 3대 활엽수인 황다리, 수겨버드나무, 가래나무를 비롯하여 피자나무·자작나무·낙엽송·잣나무 등 1,500여종의 풍부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 끝없는 산림 깊숙히에는 자연의 오묘한 조화가 깃든 신비의 약초들이 자라고 있다. 중풍치료제 죽도리풀·반신불구 치료제 천마·신경쇄약 치료제 북오미자 각혈 치료제 노선초·순환계 치료제 으름덩굴등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산신의 뜻이 담긴 풀들이 자라고 있다.

백두산은 산삼의 고향이다. 온갖 약초 가운데 산삼은 그 으뜸이다. 백두산이 빚어낸 보물인 산삼은 주로 잣나무 숲에서 발견된다. 잣나무림은 일조량이 적당하고 온도·습도가 알맞아 산삼 성장에 안성맞춤이다. 옛 전설에서 산삼과 잣나무를 부부로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한다.

태백산맥의 산 자락을 살펴보자. 낙엽송과 잣나무숲이 가꾸어 가고 있다. 백두산의 원시림처럼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백두산 사슴도 좀더 좋은 환경·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10p에서 계속

된다.

수의사의 입장에서 사슴의 질병만을 열거하다보니 사슴은 발병율이 높은 나약한 짐승처럼 묘사되었지만, 그것은 아니다. 어느 가축보다 질병이 없고 강인하며 건강하게 임신과 분만을 계속하며 녹용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슴목장이 대형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을 탈피하여 체질개선을 하기위해선 어쩔수 없이 과학적인 사육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불투명하지만, 장래성이 있는 사슴사육을 더욱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경영해나가기 위해 사육가와 학계가 협력하여 연구노력해 양육의 기틀이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양평읍 협성동물병원장